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학위논문

사회자본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김 승 현

사회자본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이 영 성

이 논문을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0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 전공
김 승 현

김승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08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사회자본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외적인 요인으로서 최근 국가나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과를 설명하는 변수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자본은 구조적 특성과 조합에 따라 경제성장에 정(+)의 효과를 주기도 하며 부(-)의 효과를 주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특성을 규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노동변수, 자본변수, 사회자본변수로 구분한 후 사회자본변수를 사회활동패턴을 나타내는 단체참여와 신뢰를 대변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공간적 분포를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특성은 수도권 및 대도시권과 남부지역 간에 약간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도권 및 대도시권은 스포츠, 취미 및 레저단체와 같은 단체참여가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했으며 남부지역은 친목 및 사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다소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는 두 지역의 사회자본이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 광역시·도별 사회자본에 대한 5개년도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모형을 구축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패널모형의 추정 결과, 사회활동패턴을 대변하는 사회자본변수 중 시민사회단체와 이익단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이 증가하면 부(-)

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간의 소통의 구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정부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한 구조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데에 여러 이유를 짐작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추정상의 어려움이 있다. 반면 이익단체 참여율은 사회자본이 경제성장에 정(+)²의 효과를 준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한다.

신뢰를 대변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의 경우, 1인당 지역내총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경제성장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졌거나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방식개선,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실시 및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자본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상승시키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사회자본, 지역경제성장, 단체참여, 신뢰, 패널모형

학 번 : 2010-23872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4
제 3 절 연구의 방법	4
제 4 절 연구의 흐름도	6
제 2 장 이론적 고찰	7
제 1 절 사회자본 이론	7
1. 사회자본 개념	7
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8
3. 사회자본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9
제 2 절 사회자본과 경제성장	11
1.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자본의 긍정적 효과	11
2.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자본의 부정적 효과	13
제 3 절 선행연구의 고찰	16
제 3 장 사회자본의 공간적 분포	20
제 1 절 분석변수의 설정	20
1. 사회활동패턴	21
2. 신뢰	22
제 2 절 표본의 통계적 특성	23
제 3 절 사회자본의 공간적 분포	24

제 4 장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구축	35
제 1 절 추정모형의 설정	35
1. 패널모형	35
2. 패널모형의 원리	36
3. 모형의 선택	38
제 2 절 모형식 설정	40
제 5 장 패널모형의 추정결과	42
제 6 장 결론	44
참고문헌	48
Abstract	51

표 목 차

[표 1] 연구 흐름도	6
[표 2] 긍정적/부정적 사회자본의 특성	15
[표 3] 변수의 종류	22
[표 4] 기초통계량	23
[표 5] 친목 및 사교단체의 공간적 분포	25
[표 6] 스포츠, 취미 및 레저단체의 공간적 분포	26
[표 7] 시민단체의 공간적 분포	28
[표 8] 이익단체의 공간적 분포	29
[표 9]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의 공간적 분포	31
[표 10] 패널데이터분석의 구분	37
[표 11] 모형의 추정결과표	43

그림 목 차

[그림 1] 지역별 스포츠, 취미 및 레저단체 참여율의 변화	27
[그림 2] 친목 및 사교단체	33
[그림 3] 스포츠, 취미 및 레저단체	33
[그림 4] 이익단체	33
[그림 5] 시민사회단체	33
[그림 6] 자원봉사활동	34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 정치학, 그리고 행정학 분야에서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경제학 분야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종래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위한 요인으로 물적자본과 인적자본만을 다루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의 동력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외적인 요인으로서 사회자본을 주목하고 있다. 처음 사회자본의 개념은 개인의 경제적 성공이나 성취를 설명하려는 다분히 미시적인 의도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회자본 개념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지역, 그리고 국가를 단위로 하여 경제발전과 같은 거시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들에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사회 또는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물적요소가 아닌 무형의 요소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재훈, 2010). 그러나 사회자본은 구조적 특성에 따라 경제성장에 정(+)의 효과를 주기도 하며 부(-)의 효과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사회자본이 경제성장에 끼치는 효과에 대해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자본은 제이콥스(Jacobs), 부르디외와 파세론(Bourdieu & Passeron), 라우리(Loury)등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으며 이후 콜만(Coleman), 버트(Burt), 퍼트남(Putnam), 포르테스(Portes) 등에 의해 보다 광범위하게 발전하게 된다(Woolcock, 1998). 사회자본은 구조적 특성상 용어를 정확히 규명하기가 어려우나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에 포함된 정보와 신뢰 그리고 상호호혜성의 규범으

로 정의되며 상호이익이 되는 집합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자본은 지속적인 관계망을 유지해야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며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회자본의 구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제주체들도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사회자본은 용어의 모호함과 이중성으로 인해 내부적 또는 외부적 특성과 조합에 따라 경제발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즉, 사회자본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에 따라 경제성장이나 공동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도 감퇴시키기도 한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사회자본은 최대화가 아닌 최적화 되어야 할 자원이라 규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자본이 경제성장이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의 내부적 특성을 규명하고 경제성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자본이 경제성장에 순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사회자본이란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지만 정확한 개념규정과 측정이 본질적으로 어렵다. 사회자본은 그 특성상 어떻게 구성되고 조합되었느냐에 따라 발전적 목적뿐만 아니라 파괴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구체화해야한다. 사회자본과 관련된 연구 또한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며 국가차원의 실증연구들뿐이며 특정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한 지방이나 마을 단위에 편중된 연구가 많았다. 이는 그동안 사회자본을 대변할 수 있는 변수들의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차원의 연구는 지역 단위에서 나타나는 미시적 차이와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체계적 분석의 수준에 그칠 수 있으며 지방이나 마을 단위의 연구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일반화된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

다(왕혜숙, 2011).

이에 본 연구는 사회자본에 대해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개념을 규정하고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자본이 우리나라의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특성을 규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범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사회자본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공통년도인 1999년도, 2003년도, 2006년도, 2009년도, 2011년도의 5개 년도에 대한 시계열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Q=Af(L,K,S)$ 라는 생산함수를 설정하여 종속변수인 총산출량 Q 에는 각 광역시·도의 지역내총생산을, 독립변수들인 L 에는 노동변수(종사자수), K 에는 자본변수(고정자본스톡), S 에는 사회자본변수를 대입하고자 한다.

사회자본변수를 나타내는 대리지표는 사회자본의 사회활동패턴과 신뢰의 두 범주로 구분하였다. 사회활동패턴의 경우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관계망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 참여율을 사용하였다. 친목 및 사고단체, 취미·스포츠 및 레저단체, 시민사회단체, 이익단체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참여율이 이에 해당된다. 신뢰의 경우 집단 내 상호부조를 나타내주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함수를 이용한 실증모형을 설정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했다. 우선 종사자수로 인한 다중공선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양변을 종사자수로 나누어 식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연구에 사용된 모형식은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1인당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 또한 독립변수들의 경우, 사회자본간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 후 16개의 광역시·도를 1999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1년

총 5개 년도로 구분하여 패널모형에 대입하고 패널모형의 일원고정효과, 이원고정효과, 일원확률효과, 그리고 이원확률효과 총 4가지 모형 중 하우스만 검증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이용하였다.

제 4 절 연구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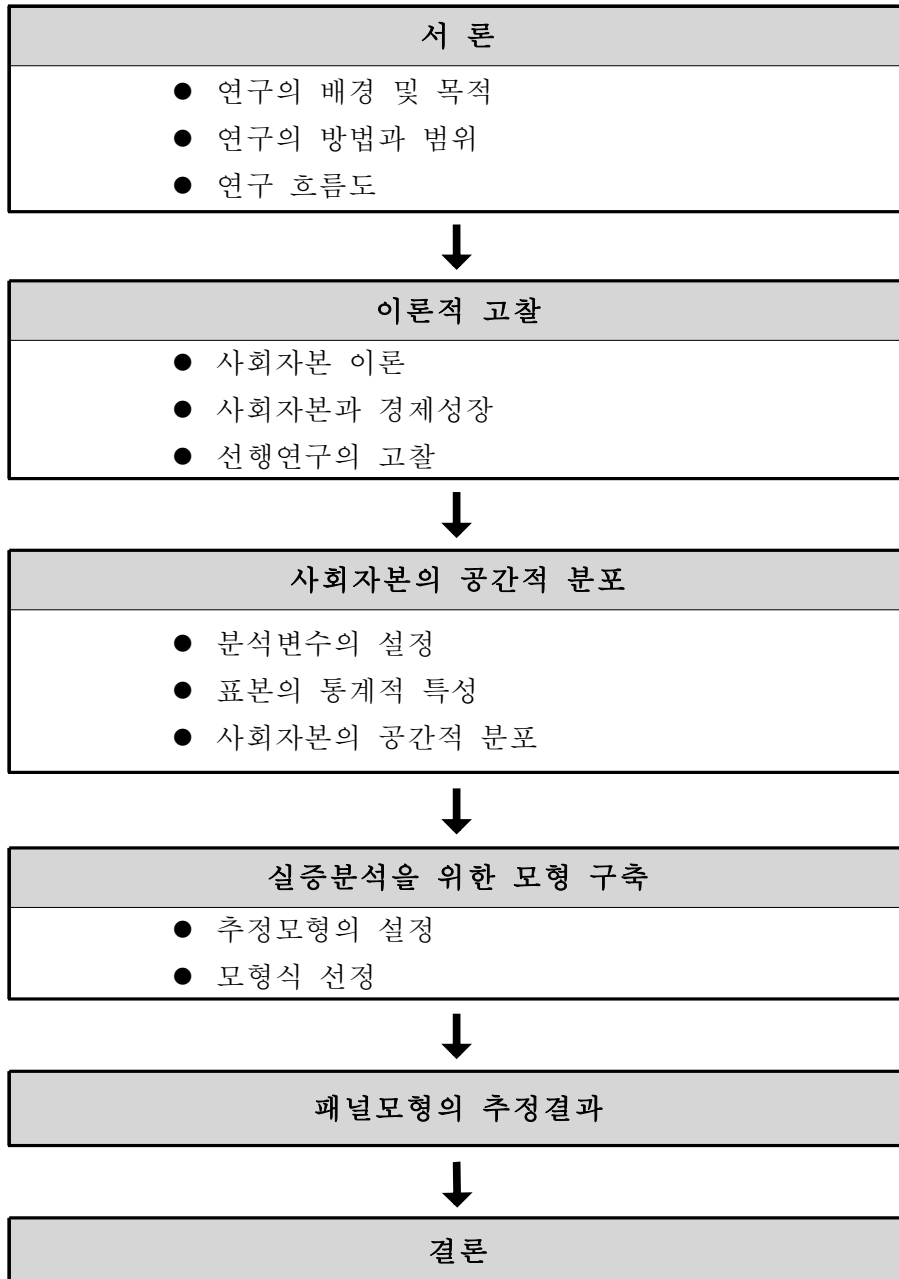


표 1 연구 흐름도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사회자본 이론

1. 사회자본 개념

사회자본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지만 부르디외(Bourdieu), 콜만(Coleman), 그리고 퍼트남(Putnam)과 같은 학자들은 사회자본의 속성을 정리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사회자본은 사회관계 속에 내재된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써 사람들 간에 형성된 관계망에 기초한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관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소유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이 획득하게 된다.

사회자본은 전통적 자본과 달리 공공재의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은 사회구조에 속한 모든 구성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따라서 다른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사회자본은 개인적 행위자에 의해서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며 과소 투자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회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그러나 인적·물적 자본과 같이 사회자본 역시 부정확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회자본의 구조적 특성과 구성요소의 조합에 따라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가장 보편적으로 합의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관계망(network), 신뢰(trust), 그리고 상호호혜성(norms of reciprocity)¹⁾이다.

부르디외(Bourdieu)는 사회자본을 관계망(network) 중심으로 정의하며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이 개인의 특성인 반면, 사회자본은 집단의 관계망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관계망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제도화라는 최초의 행위를 통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자본은 제도화된 관계망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자본을 논의할 때 관계망이 중요한 이유는 신뢰와 상호호혜성이 속해 있는 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의 성격이 변하며 이로 인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콜만(Coleman)은 사회자본에서 신뢰(trust)를 개인적 신뢰, 일반적 신뢰, 제도적 신뢰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사회자본에서 주시하는 신뢰는 낯선 사람들 사이의 일반적 신뢰이며 신뢰는 구성원간의 상호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퍼트남(Putnam)은 신뢰를 호혜성의 규범에 의존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 신뢰를 사회자본의 다른 요소인 상호호혜성과의 관련성 속에서 정의내리고 있다(홍현미라, 2005).

상호호혜성(norms of reciprocity)은 사회자본의 규범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콜만(Coleman)은 상호호혜성이라는 용어 대신 상호부조의 규범을 언급하였으며 규범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게 하기도 하고 일탈 행위를 제약하게 하기도 한다고 했다. 상호호혜성은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며 공공재의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퍼트남(Putnam)은 상호호혜성이라는 용어 대신 일반화된 호혜적 규범(norms of generalized reciprocity)을 언급하였다.

3. 사회자본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경제학에서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의 생성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사회자본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어떤 결과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부르디외(Bourdieu)는 사회자본이 관계망을 기초로 생성된다고 했는데 관계란 교환 속에서 실제적으로 성립되고 유지된다. 이 같은 사회자본은 사교행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제로 하고 시간과 에너지 및 경제적 자본의 지출을 필요로 하게 되며 필요한 순간에만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퍼트남(Putnam)은 사회자본을 유대적(bonding) 사회자본과 가교적(bridging) 사회자본으로 구분하고 있다. 집단내의 결속력을 대변하는 유대적 사회자본은 폐쇄적 관계망에서의 신뢰와 상호부조를 말하며 어떤 일을 ‘수행해나가는(getting by)’ 과정에 도움이 된다. 반면 집단 간의 연계성을 대변하는 가교적 사회자본은 각기 다른 관계망의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약할 수 있는(getting ahead)’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자본은 배태성(embeddedness)과 자율성(autonomy)이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데 행위자와 그들이 속한 집단은 ‘배태된’ 동시에 ‘자율적인’ 사회적 결속에 의존해야 한다. 울콕(Woolcock)은 이를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공동체 내부의 유대 같은 배태성을 ‘통합성(integration)’이라고 하고, 공동체를 넘어선 연결망 같은 자율성을 ‘연계성(linkage)’이라고 부른다. 또한 거시적인 수준에서는 국가/사회 관계와 같은 배태성을 ‘상승작용(synergy)’이라고 하며 제도적 응집력, 경쟁력, 역량같은 자율성을 조직적 차원의 ‘완전성(integrity)’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자본의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은 서로 다른 조합으로 합쳐졌을 때, 그리고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이 모두 상호작용하는 경우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한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차원의 상이한 조합은 그 결합 형태에 따라 한 집단이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딜레마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 집단이 발전적인 성과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차원들이 적절하게 조합되어야 한다(Woolcock, 1998).

제 2 절 사회자본과 경제성장

사회자본은 그 구조적 특성과 성격에 따라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해 논할 때에는 반드시 사회자본의 뒷면인 부(-)의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자본은 경제성장이나 공동체의 성장을 둔화 또는 감퇴시킬 것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사회자본의 내부적 특성을 규명하여 사회자본이 경제성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즉, 사회자본은 최대화가 아닌 최적화 되어야 할 것이다.

1.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자본의 긍정적 효과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는 1980년대 중반부터 긍정적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퍼트남(Putnam, 1993)은 북부이탈리아와 남부이탈리아의 경제성과 차이를 네트워크와 참여도의 차이로 설명하며 사회자본이 정치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풍요를 낳는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Fukuyama(1995)와 Knack and Keefer(1997) 등은 Putnam(1993)과는 달리 사회자본의 요소 중 참여보다 신뢰와 시민적 규범이 경제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네트워크와 신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네트워크는 신뢰의 유지, 기업 활동의 활성화, 거래비용의 감소, 기술 혁신에의 기여 등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우선 긴밀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충분한 유대관계(ties)를 만들어주며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호혜성의 규범과 신뢰를 유지시켜 준다(Coleman, 1998, Putnam, 1993). 또한

공동체 네트워크는 비공식적 금융제도(계모임 등)를 통해 자원을 조달할 수 있게 해주며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이는 뉴욕의 차이나타운(Zhou, 1992), 마이애미의 리틀 하바나(Perez, 1992),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Nee et al., 1994) 등의 연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는 고용과도 상당히 긍정적인 연관이 있는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지역은 정보탐색비용을 포함한 거래비용이 줄어든다. 미국 노동시장에서 상당수의 일자리가 개인추천과 구전(word-of-mouth)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Granovetter, 1974). 마지막으로 지식과 정보의 소통 네트워크는 한 지역의 기술혁신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Putnam(2000)은 실리콘 벨리와 보스톤의 125회랑을 비교하며 수평적 네트워크를 갖춘 지역산업체제에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학습이 더 유연하고 동태적으로 이루어지며 창조성과 기술혁신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신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건전한 상호의존의 규범과 신뢰가 보편화된 사회일수록 거래비용이 줄어든다. 모든 거래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신뢰는 공식적 계약을 할 경우 드는 거래비용, 계약준수를 위한 감시비용, 계약파기로 인한 분쟁비용 등을 줄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신뢰는 또한 협력을 가능하게 해주며 사회자본의 공공재적인 성격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시켜 사회적 네트워크를 풍부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신뢰는 공동체의 결합을 강화하며 일체감을 높이고 강력한 집단적 연대를 유발한다(한성안, 2003).

단, 네트워크와 신뢰가 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 수평적 조직, 그리고 이차적 관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단체의 조직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즉, 사회자본을 양산하는 조직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며 자신의 실용적 이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협동하여 신뢰와 상호작용을 유발한다. Newton(1999)는 일부 자발적 조직은 사실 자발적이지 않

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폐쇄형 노동조합의 경우 강제적인 성격을 띠며 연간 회비만을 내고 형식적인 참여만을 하는 변호사 및 의사협회 등도 자발적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사회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단체는 조직이 수평적이어야 한다. Putnma(1993)은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수직적 네트워크는 그 관계가 아무리 긴밀하다 하더라도 사회적 신뢰와 협동을 유지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정보의 수직적 흐름이 수평적 흐름보다 신뢰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는 일차적·비공식적인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닌 이차적·공식적 관계에 의거한 조직이어야 한다. Newton(1999)은 같은 종족, 계층, 지역사회를 기본으로 한 일차적 조직이 다른 사회 구성원에 대해 배타적이기 때문에 사회에 갈등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일차적 조직을 기반으로 한 단체는 단체 내에서는 깊은 신뢰와 강력한 통제력을 지니지만 다른 집단 또는 보다 큰 사회에서는 불신을 조장하기도 한다. 반면 이차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조직은 다양한 사회집단을 넘나드는 교량적 연대(bridging networks)의 형태를 띤다. 이 같은 연결망의 형태는 집단 내의 신뢰를 넘어서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국가기구와 제도에 대한 신뢰 역시 높게 나타나며 집합행동과 협동을 극대화시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2.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자본의 부정적 효과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자본의 긍정적 효과는 분명 있지만 많은 연구결과들은 사회자본에 대한 맹신을 경고한다. 사회자본을 상대화시키는 관점에 입각하면서 사회자본의 과잉이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들은 사회자본이 야기하는 몇 가지 부정적

효과들을 확인하였다.

첫째, 강력한 유대관계와 신뢰는 집단 구성원들에게는 편익을 가져다 주지만 다른 집단들을 배제시킬 수 있다. 그럴 경우 타인은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집단들이 누리는 이익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는다 (Waldinger, 1995). Powell and Smith-Dorr(1994), Fafchamps(2002), 그리고 Taylor(2002)도 이 같은 주장을 지지하며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비회원은 불리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2세기 전 아담 스미스도 상인들의 화합이 일반 국민들을 배제하며 공공에 대한 ‘공모(collusion)’로 종결되었다고 했다. 이처럼 강력한 유대관계는 특히 친족 등의 좁고 폐쇄적 성향의 네트워크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후쿠야마(1996)는 이 같은 사회를 “일반적 신뢰”가 낮은 저신뢰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퍼트남(1993)은 폐쇄적 신뢰는 내부적으로 강한 충성을 형성하지만 외부적으로는 강한 반감과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서는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왕혜숙, 2011).

사회자본의 두 번째 부정적 효과는 강력한 결속력이 집단 구성원에 대한 ‘과잉요구(overdemand)’를 유발함으로써 결국 구성원의 성공을 차단해 버린다는 것이다. Geertz(1963)는 실제로 발리의 상업자본가 등장과정을 연구하며 유망한 기업들의 성공이 넓은 가족관계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부조를 강요하는 규범에 의해 방해받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같은 사회자본의 ‘무임승차문제’가 무리하게 이루어질 경우, 기업의 저축과 투자를 억제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긴밀한 네트워크는 확실성을 요구하고 자유를 제한하여 창의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Boissevain(1974)는 말타섬의 마을생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자본이 공동체 생활과 지역규범에 강력한 실행기반을 제공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은 감소했다고 했다. 이 때 사람들은 창의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나 네트워크는 사회의 전체이익에 반하는 목적에

따라 작동할 수도 있다(한성안, 2003). Olson(1982)은 특정 공동체의 이익추구행위(rent-seeking activities)가 전체사회의 성장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이 같은 공동체들은 정치적 특혜를 얻기 위해 로비를 하며 전체사회를 희생시킨다. Putnam(1993) 또한 단체가 집단 이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자본의 단체를 정의할 때 수직적인 조직이 아닌 수평적인 조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끼치는 사회자본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 2 긍정적/부정적 사회자본의 특성

	긍정적 사회자본	부정적 사회자본
네트워크 형태	개방적	폐쇄적
네트워크 성격	약한 연대	강한 연대
네트워크 구조	수평적	수직적
가입경로	이차적 / 공식적	일차적 / 비공식적
단체참여	자발적 / 적극적	강제적 / 형식적
신뢰의 유형	일반적 신뢰 제도적 신뢰	제한적 신뢰

제 3 절 선행연구의 고찰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자본이 생성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의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울콕(Woolcock)은 자신의 글에서 남아시아, 사하라사막, 아프리카 지역 등의 개발도상국을 통해 사회자본과 경제발전에 관한 역설적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경제발전이 뒤쳐진 많은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가 상호 신뢰의 결여라는 애로우(Arrow)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즉, 위와 같은 지역에서는 사회자본이 결핍되어 상호이익이 되는 집합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저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홍현미라, 2005).

퍼트남(Putnam)은 이탈리아의 북부사회와 남부사회를 비교한 연구를 통해 사회자본과 지방정부의 성과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북부사회가 수평적으로 조직된 시민 참여의 관계망을 통해 일반적 호혜성의 규범과 신뢰를 증진시켜 남부사회보다 좋은 경제적 및 정치적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입증하고 있다. 퍼트남(Putnam)에 의하면 관계망, 신뢰 및 호혜성의 규범과 같은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들은 협력과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며 신뢰성에 대한 정보비용을 줄여준다.

Knack and Keefer(1997)는 사회자본의 단체참여, 신뢰, 그리고 시민적 규범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는 특히 단체참여를 Banks and Textor(1963)에 의해 분류된 이익표명(interest articulation) 변수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는 각각의 단체가 정부에 자신들에게 이로운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얼마나 표명하는지 여부에 따라 나뉜다. 그는 표명하는 정도가 클수록 단체들은 정부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며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공익을 희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Knack and Keefer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자본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나 Putnam의 주장과는 달리 공식적인 단체참여가 신뢰 및 경제성장에 미치

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신뢰와 시민적 규범의 경우에는 경제성장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신뢰와 시민적 규범은 소득이 평등하고 정부가 투명하며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Beugelsdijk(2004)는 54개의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회자본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그는 사회자본을 단체참여와 신뢰의 두 범주로 구분한 후, 단체참여를 특성별로 다시 분류하였다. 우선 Knack and Keefer(1997)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단체참여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예상효과에 따라 구분하였다. 경제성장에 정(+)의 효과를 준다고 정의한 단체참여의 종류를 Putnam그룹으로, 부(-)의 효과를 준다고 정의한 종류를 Olson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단순히 가입만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적극적 단체참여와 수동적 단체참여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의 연구결과는 Putnam그룹의 적극적 단체참여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증명하며 Putnam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사회자본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단체참여가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사회자본과 관련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한성안, 2003; 성도경, 2004; 김성권, 2004; 류석춘 외, 2008; 김재훈, 2010). 한성안(2003)은 사회자본이 경제성장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그는 사회자본이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경제적 상호이익을 달성시켜 주는 공공재임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자본이 사회전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있어 대단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성도경(2004)은 우리나라 사회자본 중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 및 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는 한국의 시민단체가 처한 취약한 여건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사회자본을 형성한다는 데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서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직적이고 가입과 활동이 구성원의 학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비판적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정부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한 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서양의 개인주의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가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구성원의 책임을 필요로 하는 수평적 사회단체로 변화할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권력을 분권화하고 정부의 구조를 참여적으로 전환하여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사회자본이 보다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권(2004)은 사회자본이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노동기회, 생산성, 협력, 혁신, 정보 그리고 거래비용 등의 경제적 효용과 공공적 가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상승시켜주는 중계자 내지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는 사회자본을 사회활동패턴과 신뢰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OECD국가들의 사회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OECD 국가들의 사회자본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류석춘 외(2008)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사회자본의 '일반화된 호혜성' 개념을 통해 재구성하였다. 그는 한국 '사회'가 일반화된 호혜성을 내부의 규범으로 삼아 조직적 통합성 및 완전성을 이룩할 수 있었고 한국 '국가'는 미시적 단위에서 사회를 동원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하였고 사회집단들과 국가 사이에 일반화된 호혜성을 기초로 한 상승작용이 만들어지면서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동력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경제 발전은 국가의 재분배 매커니즘과 사회의 일반화된 호혜성 매커니즘이 상호 결합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김재훈(2010)은 사회자본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자본이 경제발전 혹은 사회 전반의 자본 형성을 위해 어떻게 육성되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는 사회자본을 육성하는 정책을 ①호혜적 재분배의 성격을 띠는 집단 내 상호부조 지원, ②사회적 약자 집단의 자생력 육성을 지원하는 정보교류의 관계망, 그리고 ③서로 다른 집단의 대외 연계 및 길항력 육성을 위해 자발적 조직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자본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있어 사회자본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드물며 사회자본의 대리지표를 선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의 경우, 물적성장이 아닌 질적성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리지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사회자본은 단순한 물적 경제성장이 아닌 질적 또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 3 장 사회자본의 공간적 분포

제 1 절 분석변수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자본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분석 변수는 이론적 고찰에서 사회자본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정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회자본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자료의 한계가 존재한다. 통계청에서는 1999년도부터 4년 주기로 사회자본과 관련된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주기가 2년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16개 광역시·도의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의 패널자료이다. 시계열 데이터는 2년에서 4년 단위의 자료(1999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1년)를 구축하여 총 5개이며 횡단면 데이터는 16개이다. 따라서 총 관측치는 $80(5 \times 16)$ 개이다.

종속변수의 경우 통계청 자료의 각 광역시·도별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지역내총생산을 로그값으로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노동변수, 자본변수, 사회자본변수로 분류하였다. 노동변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종사자수를 이용하였고 자본변수는 통계청의 지역총생산에 대한 지출 자료에서 제공하는 총유형고정자본량을 이용했다. 통계청에서는 광역시·도별로 매년 총유형고정자본량을 2000년 가치로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자본스톡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다. 단, 본 연구에서는 2011년도 시계열 데이터에서 지역내총생산과 자본변수는 2011년도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2010년도의 데이터로 대체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회자본의 기본구성요소는 관계망(network), 신뢰(trust), 그리고 상

호호혜성(norms of reciprocity)이다. 이를 기반으로 야콥스(Jacobs, 1969), 라우리(Loury, 1977), 콜맨(Coleman, 1988), 퍼트남(Putnam, 2000) 등은 사회자본의 범주를 단체, 시민사회활동, 자발적인 활동, 신뢰 등 네 가지로 나누었다(Wuthnow, 2001). 이러한 네 가지 범주는 홀(Hall, 2001)에 의해 사회활동패턴과 신뢰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사회활동패턴은 위의 네 가지 범주 중 단체, 시민사회활동, 자발적인 활동을 포괄한다(김성권, 2004). 본 연구에서도 사회자본변수를 사회활동패턴과 신뢰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1. 사회활동패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관계망은 사회활동패턴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사회자본을 연구한 많은 문헌들은 사회자본의 대리지표로 사회활동패턴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가치조사(WVS:World Values Survey)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WVS는 전 세계 66개국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구, 경제, 정치 및 사회학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횡단면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전 세계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활동패턴에 대해 WVS는 결사체 참여(Membership in voluntary organizations)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결사체는 교회(church), 스포츠(sports), 예술(arts), 연합(unions), 정당(parties), 환경(environment), 학술(professional associations), 자선(charity), 기타(other groups)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사회조사의 한 부문으로 사회참여에 대한 조사를 1999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활동패턴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단체참여율 자료 중 친목 및 사교단체, 취미·스포츠 및 레저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이익단체에

대한 참여율을 사용하였다.

2. 신뢰

본 연구에서의 신뢰 변수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을 포함한다. 자원봉사활동과 기부와 같은 집단 내 상호부조는 호혜적 재분배의 성격을 띠며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김재훈,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신뢰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사용했다.

표 3 변수의 종류

변수의 종류		변수명	단위	변수설명	
종속변수		지역내총생산	원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 지역내총부가가치(기초가격) + 순생산물세	
독립변수	노동변수	종사자수	명	전체산업 종사자수	
	자본변수	고정자본스톡	원	누적유형고정자산	
	사회자본변수	단체참여	친목 및 사교단체	%	지난 1년간, 13세 이상 인구, 복수응답 가능
			취미·스포츠 및 레저단체	%	
			시민사회단체	%	
			이익단체	%	
신뢰	자원봉사활동	%	지난 1년간, 13세 이상 인구		

제 2 절 표본의 통계적 특성

종속변수인 지역내총생산과 노동변수, 자본변수, 사회자본변수를 포함한 7개의 독립변수를 16개 광역시·도의 199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5개 년도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의 기초통계량을 구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기초통계량 분석 결과, 친목 및 사교단체 참여율이 평균 76.30%로 다른 사회자본변수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표준편차도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는 스포츠, 취미 및 레저단체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평균 참여율이 각각 27.51%와 17.34%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참여율은 11.64%로 다른 사회자본변수에 비해 저조했으며 특히 이익단체에 대한 참여율은 3.24%로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기초통계량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GRDP	5888949.0	243107058.0	55286224.90	56731473.26
종사자수	148133.0	4487357.0	969378.30	1027222.50
고정자본	16838662.0	633539390.0	142547684.90	134325752.37
친목 및 사교단체	53.9	88.2	76.30	8.40
취미·스포츠및레저 단체	16.1	43.6	27.51	5.86
시민사회단체	7.0	19.7	11.64	2.64
이익단체	1.2	16.8	3.24	2.16
자원봉사활동	9.8	25.2	17.34	3.80

제 3 절 사회자본의 공간적 분포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선 지역 간 사회자본의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만약 우리나라 사회자본이 공간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통계분석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 간에 사회자본의 수준이 상대적인 차이를 보일 경우, 그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여 이들이 지역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지역별 사회자본의 공간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친목 및 사교단체는 사회활동패턴의 단체참여 대한 변수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러나 친목 및 사교단체 참여율의 경우 전국적으로 2003년 이전까지는 모든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에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 수도권 지역과 북부지역의 친목 및 사교단체 참여율은 각각 평균 71.42%, 72.54%, 69.6%, 74.18%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저조했다. 반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등 남부 지역의 경우 친목 및 사교단체 참여율이 각각 평균 78.32%, 79.24%, 78.18%, 78.28%로 활발한 편이었다. 이들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은 연도별로 평균 6.7% 내외의 차이를 보이며 지역 간의 격차가 시간에 따라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3년도에는 약 6.33%의 차이가 났던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은 2011년도 7.83%로 그 격차가 약간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율의 경우 2011년을 기준으로 북부지역은 약 69.5%, 남부지역은 약 77.3%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표 5 친목 및 사교단체의 공간적 분포

	1999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1년
서울특별시	63.4	78.3	72.6	72.2	70.6
부산광역시	64.3	86.2	82.2	86.1	72.8
대구광역시	61.9	86.3	84.0	82.7	81.3
인천광역시	53.9	80.1	74.2	70.2	69.6
광주광역시	60.0	84.6	77.7	76.1	79.3
대전광역시	63.0	83.4	78.7	79.8	68.0
울산광역시	55.7	87.2	88.2	82.3	77.5
경기도	63.4	79.5	77.3	73.4	69.1
강원도	67.2	82.8	77.7	74.7	68.5
충청북도	69.1	82.2	81.2	81.2	78.2
충청남도	70.8	85.5	83.2	80.9	76.2
전라북도	62.4	85.7	82.5	75.7	78.2
전라남도	56.4	81.1	80.5	80.1	76.0
경상북도	62.6	85.3	82.0	83.4	78.1
경상남도	65.1	87.5	79.7	85.8	76.7
제주도	70.6	87.7	81.9	86.6	75.7

표 6 스포츠, 취미 및 레저단체의 공간적 분포

	1999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1년
서울특별시	21.0	33.6	30.4	33.1	38.9
부산광역시	19.6	22.8	25.7	22.5	38.6
대구광역시	27.2	26.3	27.5	28.8	28.1
인천광역시	21.8	28.3	27.3	41.2	36.5
광주광역시	18.5	30.9	28.4	37.4	28.8
대전광역시	22.7	31.5	31.3	34.9	34.4
울산광역시	27.0	28.6	30.3	43.6	38.5
경기도	19.7	32.6	32.0	29.9	36.9
강원도	21.6	25.3	25.6	31.8	33.2
충청북도	17.8	26.3	24.2	30.7	30.5
충청남도	19.2	22.1	22.7	24.5	25.4
전라북도	23.1	25.2	18.1	23.4	29.5
전라남도	21.7	23.9	22.9	19.5	20.9
경상북도	18.1	24.6	23.6	27.8	29.7
경상남도	26.5	25.6	26.9	31.4	30.4
제주도	16.1	25.6	30.7	24.9	32.6

스포츠, 취미 및 레저단체 참여율은 전국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과 남부지역 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스포츠, 취미 및 레저단체 참여율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등 대부분의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에서 각각 평균 31.4%, 31.02%, 30.96%, 33.6%, 30.22%로 나타났

다. 반면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의 일부 남부지역은 각각 평균 22.78%, 21.78%, 24.76%로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다만 충청남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계속해서 참여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참여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연도별 편차도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편차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벌어지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스포츠, 취미 및 레저단체 참여율이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는 38.9%로 가장 낮은 전라남도의 20.9%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18%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림 5]는 시간에 따른 지역별 스포츠, 취미 및 레저단체 참여율의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지역별 스포츠, 취미 및 레저단체 참여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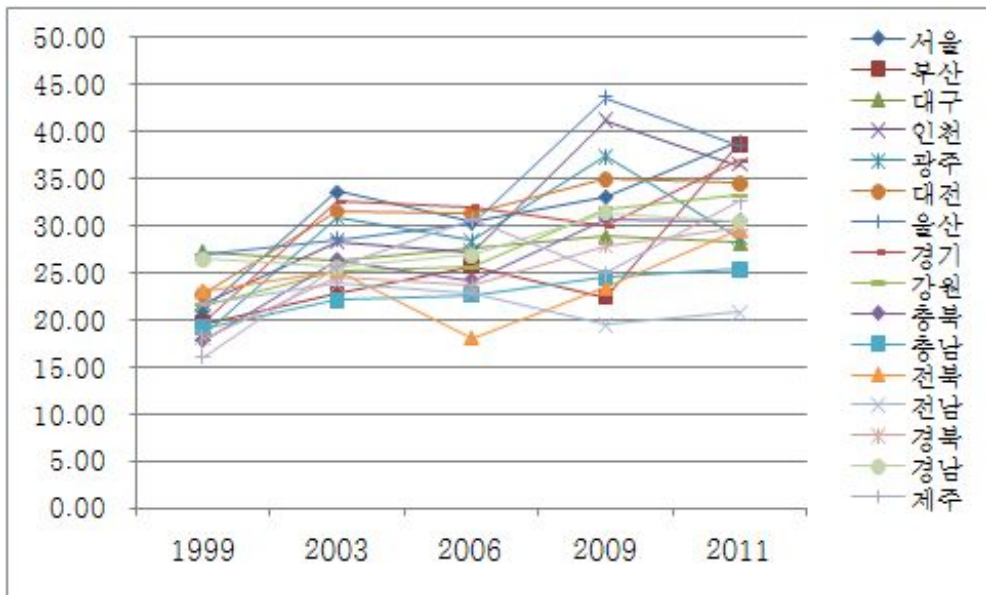


표 7 시민단체의 공간적 분포

	1999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1년
서울특별시	7.0	9.0	9.7	11.7	9.1
부산광역시	9.4	8.2	9.9	9.0	12.0
대구광역시	8.0	7.5	7.6	10.5	8.9
인천광역시	10.4	7.6	9.3	13.1	12.1
광주광역시	10.2	11.0	13.8	15.9	9.3
대전광역시	8.7	10.3	10.5	13.6	15.1
울산광역시	9.5	9.6	10.0	18.1	12.9
경기도	8.5	9.7	10.0	11.3	11.0
강원도	10.8	10.8	11.9	16.4	14.2
충청북도	11.5	13.5	12.2	15.2	10.3
충청남도	10.6	10.3	12.5	13.5	11.4
전라북도	9.8	9.7	10.2	11.4	8.5
전라남도	14.3	12.3	14.2	14.0	8.9
경상북도	14.2	11.3	12.4	16.8	14.2
경상남도	14.7	13.1	13.2	19.7	13.1
제주도	12.9	12.4	17.5	14.7	13.6

시민단체 참여율의 경우 평균 10% 대를 유지하며 2009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대전광역시는 예외적으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시민단체의 참여율은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권과 남부지역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의 일부 대도시권은 평균 9.3%, 9.7%, 8.5%의 시민단체 참여율을 보인

반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의 남부 지역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13.78%, 14.76%, 14.22%의 참여율을 보였다. 그러나 수도권과 남부지역간의 편차는 1999년도부터 2011년까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1999년 약 4.55%의 차이가 2011년에는 약 0.93%로 좁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 이억단체의 공간적 분포

	1999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1년
서울특별시	2.6	2.8	3.0	4.0	2.5
부산광역시	1.2	3.5	2.7	2.4	3.3
대구광역시	2.4	2.9	2.8	2.2	1.9
인천광역시	3.8	2.6	2.9	2.9	2.2
광주광역시	2.9	3.9	3.6	5.2	2.7
대전광역시	3.5	3.0	3.3	3.9	2.6
울산광역시	16.8	13.6	7.3	4.3	3.7
경기도	1.7	3.7	4.1	4.4	2.6
강원도	1.6	3.6	3.6	2.3	1.8
충청북도	1.9	2.4	3.2	2.6	2.2
충청남도	1.9	3.9	2.8	3.9	2.6
전라북도	2.1	2.3	2.8	1.6	2.7
전라남도	3.0	4.5	4.0	3.4	1.9
경상북도	3.2	3.0	3.0	2.6	2.1
경상남도	1.7	3.4	3.7	2.2	2.4
제주도	1.5	3.9	1.8	2.3	2.4

이익단체의 참여율의 경우 5%대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체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또한 이익단체 참여율의 경우 지역별 분포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의 이익단체의 참여율이 각각 평균 9.14%, 3.66%, 3.3%로 그나마 높았으며 대구광역시와 전라북도가 각각 평균 2.44%, 2.3%로 가장 낮았다. 다만 울산광역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이익단체의 참여율이 월등히 높은 편이었다. 울산광역시는 1999년의 경우 이익단체의 참여율이 16.8%로 다른 지역보다 약 15% 정도 더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이후 편차가 꾸준히 줄었으나 2011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3.7%로 여전히 제일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표 9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의 공간적 분포

	1999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1년
서울특별시	11.9	12.2	12.8	18.1	18.1
부산광역시	10.3	12.0	11.8	17.5	18.7
대구광역시	12.7	12.4	13.4	18.6	19.6
인천광역시	9.8	11.9	11.8	17.8	18.5
광주광역시	11.3	17.2	16.5	17.9	24.6
대전광역시	17.1	16.2	14.7	24.5	19.8
울산광역시	19.4	14.1	14.8	25.2	23.2
경기도	12.2	13.9	13.5	18.6	19.2
강원도	14.7	19.8	17.3	19.1	20.7
충청북도	14.0	18.3	16.7	19.5	18.4
충청남도	13.4	17.4	18.3	19.9	20.8
전라북도	12.9	18.3	15.8	19.3	20.3
전라남도	14.0	15.0	17.9	23.2	21.0
경상북도	17.9	15.4	16.2	22.2	24.5
경상남도	14.1	19.6	15.5	19.7	21.6
제주도	19.0	23.3	21.3	23.2	23.9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의 경우 전국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6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에 급속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로 볼 경우 제주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등 일부 남부지역이 각각 평균 22.14%, 19.24%, 19.34%로 높았으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와 같은 수도권이나 일부 대도시권의 경우 각각 평균 14.62%, 14.06%, 13.96%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에 속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의 경우도 시민사회단체 참여율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지

역과 남부지역간의 격차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의 경우 지역 간의 격차가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의 경우에 비해 미세하긴 하나 1999년도 약 3.74%의 격차가 꾸준히 좁아지며 2011년도에는 약 3%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1999년도에서 2011년까지 우리나라 사회자본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하고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스포츠, 취미 및 레저단체와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친목 및 사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의 경우 일정 시점까지 증가하다 이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단체 참여율의 경우 뚜렷한 변화를 찾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공간적 분포와 변화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수도권 및 대도시권과 남부지역 간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경우 스포츠, 취미 및 레저단체 참여율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남부지역의 경우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수도권 및 대도시권과 남부지역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권은 유입된 이주자들의 이동 패턴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남부지역과는 다른 양상의 사회자본이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인선(1997)은 베트남의 북부와 남부지역의 사회자본의 특성을 규명하며 남부로 유입된 이주자들의 이동패턴은 기존에 형성된 사회관계적특성을 재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부로 유입된 이주자들의 대부분이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생존과 적응을 위해 가족 외부의 연결망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동원하며 2차 관계에 있어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지역별 사회자본의 수준은 수도권 및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친목 및 사교단체 참여율의 경우 남

부지역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과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2 친목 및 사교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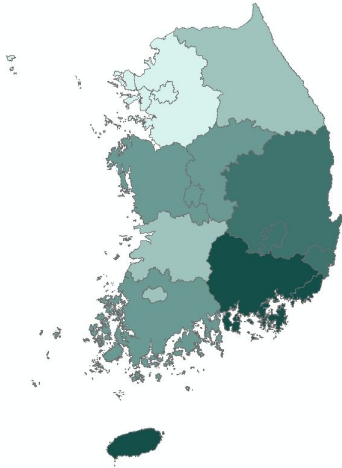


그림 3 스포츠, 취미 및 레저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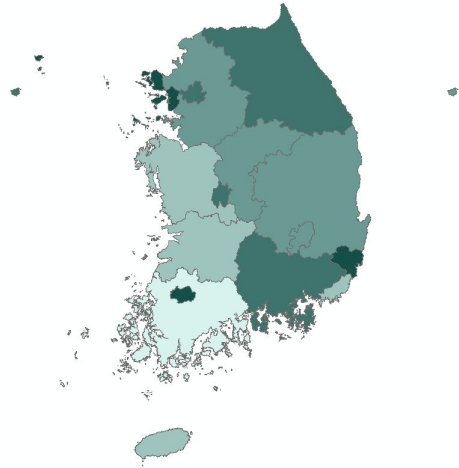


그림 4 이익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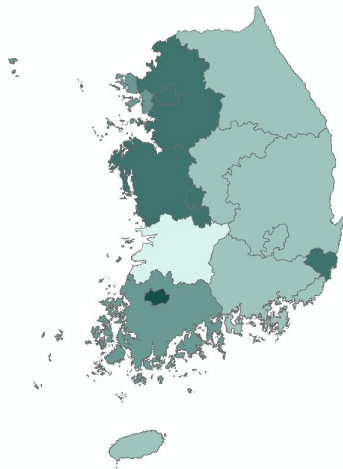


그림 5 시민사회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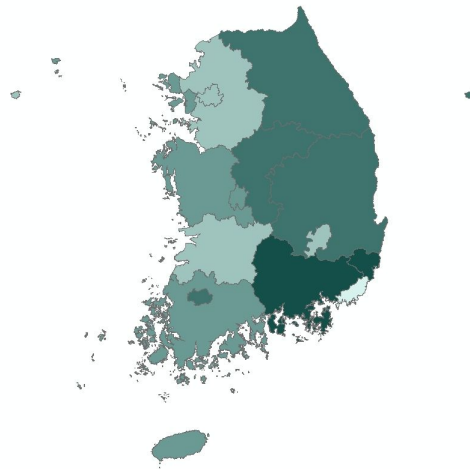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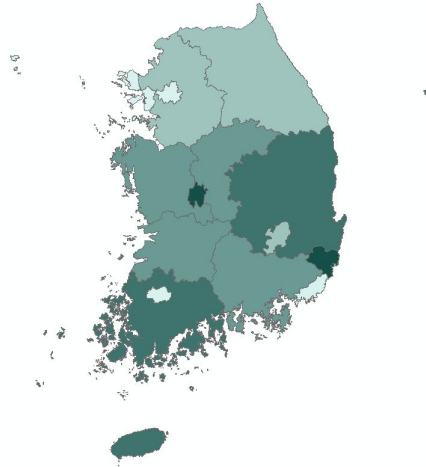


그림 6 자원봉사활동



[그림6]에서 [그림10]은 지역별 사회자본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공간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수준은 사회자본의 유형에 따라 지역별로 약간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지역별 특성을 정리하면 수도권 및 대도시권은 스포츠, 취미 및 레저단체와 같은 단체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남부지역의 단체 참여는 친목 및 사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수도권 및 대도시권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두 지역의 사회자본이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성격을 규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 4 장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구축

제 1 절 추정모형의 설정

1. 패널모형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사회자본 수준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패널 데이터 분석모형을 구축하였다. 패널모형이란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는 분석모형을 의미하며 시계열 데이터 정보와 횡단면적인 데이터 정보를 함께 보유하고 있어 시계열 분석 내지 횡단면 분석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가적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 또한 시계열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정오차와 지역별 단위의 자료에서 발생하는 추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Baltagi, 2001). 회귀방정식을 설정할 때 종속변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독립변수로 포함되지 않은 요인들이 있을 경우 추정된 모형이 매우 위험하게 되는데 패널모형은 이러한 누락된 변수(omitted variable)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데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패널모형은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패널 데이터는 개별적 특이성(individual heterogeneity)을 통제할 수 있다. 즉, 시계열 분석이나 횡단면 분석에서는 불가능한 개별특성효과(individual effect)와 시간특성효과(time effect)를 모두 통제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둘째, 패널데이터는 시계열 자료만 사용할 경우에 비해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셋째, 횡단면 자료에서는 포착하기 힘든 동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패널 데이터는 단순 횡단면 데이터나 시계열 데이터만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효과들을 측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패널 데이터는 단순 횡단면 자료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할 때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지만 패널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횡단면 자료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Baltagi, 2005).

패널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한계도 지니고 있다. 첫째, 자료를 수집하고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모두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의 형태가 보다 복잡해지며 측정오차가 왜곡될 경우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 없다. 둘째, 패널 데이터의 시계열이 단기간일 경우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패널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최충익, 2004).

2. 패널모형의 원리

패널모형은 패널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출해 내는 분석기법으로 횡단면 분석이나 시계열 분석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누락변수(omitted variable)에 대한 처리를 해준다. 누락된 변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오차항에 대해 지역 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시간변화에 따른 변동이 없는 변수, 시간변화에 따라 변동하나 지역 간에는 차이가 없는 변수, 지역 간에도 차이가 있고 시간변화에 따라 서로 변동하는 확률적 교란항으로 구분하여 다루게 된다. 이를 일반적인 선형모형으로 표현하면 아래 식과 같다(Ashenfelter, et al., 2003).

$$Y_{it} = \alpha + X_{it}\beta + \epsilon_{it} \quad (1)$$

(단, ϵ_{it} =시간 t 에서 횡단면 i 의 오차항, i (지역)=1,2...N, t (년도)=1,2...T)

패널모형의 오차항 ϵ_{it}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psilon_{it} = \mu_i + \lambda_t + \nu_{it} \quad (2)$$

μ_i = 관찰되지 않은 지역특성 효과(unobservable individual effect)

λ_t = 관찰되지 않은 시간 효과(unobservable time effect)

ν_{it} = 확률적 교란항(remainder stochastic disturbance term)

패널모형의 유형은 다음의 표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0 패널데이터분석의 구분

구분	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확률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
일원오차성분모형 One-Way Error Component Regression Model	I	II
이원오차성분모형 Two-Way Error Component Regression Model	III	IV

주: 최종익(2004)에서 인용

패널모형은 오차항의 고려방식에 따라 일원오차성분모형(One-Way Error Component Regression Model)과 이원오차성분모형(Two-Way Error Component Regression Model)으로 나누어진다. 즉, 일원오차성분모형은 오차항 ϵ_{it} 에서 지역특성 효과 μ_i 와 확률적 교란항 ν_{it} 만을 고려하고 이원오차성분모형은 여기에 시간별 효과인 λ_t 까지 고려한다. λ_t 는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와 같이 특정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패널모형은 오차항에 대한 가정에 따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나뉜다. 이는 시간불변의 지역특성 효과 μ_i 와 독립변수 X_{it}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지역특성 효과 μ_i 가 독립변수 X_{it} 와 상관관계가 있으면 고정효과모형을 쓰고 상관관계가 없으면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한다.

패널모형의 유형을 정리하면 일원오차성분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고 관찰되지 않은 특정한 변수가 지역마다 잠재해 있다는 가정을 하는 고정효과모형(I)과 특정 성질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하는 확률효과모형(II)으로 나뉜다. 반면 이원오차성분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고 관찰되지 않는 특정한 변수가 지역마다 잠재해 있고 시계열별 독특한 특성이 매 기간에 잠재해 있음을 가정하는 고정효과모형(III)과 각각 지역, 시간마다 모두 고정되지 않고 확률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는 확률효과모형(IV)으로 나뉜다.

3. 모형의 선택

패널모형으로 자료를 분석할 경우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확률효과모형은 지역특성 효과 μ_i 가 독립변수 X_{it} 와 상관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고정효과모형은 자유도를 많이 소모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지역특성 효과 μ_i 와 독립변수 X_{it}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확률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 중에서 어느 것이 더욱 적합한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우스만 검정법(Hausman Specification Test)을 사용한다. 하우스만 검정법의 기본가설은 “확률효과모형의 추정치가 적합하

다”이며 이를 기각할 경우 고정효과모형이 선택되는 것이다. 하지만 두 모형이 서로 의미 있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를 정확하게 내주는 경우는 드물며 실제로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하우스만 검정법에만 의존해서 모형선택을 하기보다는 계수의 유의 정도 및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서 선택해야 한다.

제 2 절 모형식 설정

본 연구의 실증모형이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첫째, 각각의 사회자본 요소들이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에 효과를 미치는지, 둘째, 효과를 미친다면 그 크기가 각각 어느 정도이며 정(+)의 효과인지 부(-)의 효과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는 다른 조건들을 통제했을 때 사회자본의 각 변수들의 비율이 지역내총생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추정하여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가장 일반화된 생산함수인 식(1)을 이용한다.

$$Q=Af(L,K,S) \quad (1)$$

(단, Q=총산출량, A=총요소생산성, L=노동투입량, K=자본스톡, S=사회자본)

이 때, 종속변수인 총산출량 Q에는 각 광역시·도의 지역내총생산, 독립변수들인 노동변수 K에는 종사자수, 자본변수 L에는 고정자본스톡, 사회자본변수 S에는 각각의 단체참여율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대입한다. 본 연구의 실증모형을 설정할 때에는 다중공선성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일으키는 핵심변수인 종사자수를 통제하기 위해 좌변과 우변의 지역내총생산, 종사자수, 고정자본스톡을 각각 종사자수로 나누고 자연로그를 취했다. 따라서 추정 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ln(1인당 지역내총생산) = & \beta_0 + \beta_1 \ln(\text{고정자본스톡}) + \beta_2(\text{친목 및 사교단체 참여율}) \\ & + \beta_3(\text{취미·스포츠 및 레저단체 참여율}) + \beta_4(\text{시민사회단체 참여율}) \\ & + \beta_5(\text{이익단체 참여율}) + \beta_6(\text{자원봉사활동 참여율}) \end{aligned}$$

모형식의 사회자본변수는 사회활동패턴변수인 단체참여율과 신뢰변수인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을 포함한다. 따라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로그값은 절편 β_0 를 제외하면 6개의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된다. 그리고 사회자본의 효과가 존재한다면 $\beta_2 \sim \beta_6$ 의 증가에 따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비율은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이며 이는 사회변수들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 5 장 패널모형의 추정결과

분석모형에 의한 추정결과는 [표11]과 같다. 이원고정효과모형과 이원확률효과모형 중 적합한 모형이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 이원확률효과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왔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0.754로 다소 높게 나왔다.

이원확률효과모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자본 변수 중 시민사회단체와 이익단체는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의 비율이 1만큼 증가하면 약 0.006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선행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추정상의 어려움이 있다. 가령 이는 사회적 통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해질 경우 기업의 자유가 제한되며 기업이 창의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와 기업이 상호작용을 할 때 대립적으로 대처하는 소통의 구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사이에서 조율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거나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한 시민사회단체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익단체의 경우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즉, 이익단체 참여율의 비율이 1만큼 증가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약 0.00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자본이 경제성장에 정(+)의 효과를 준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한다.

신뢰를 대변하는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의 경우, P값이 0.1020으로 나왔으나 이는 분석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의 비율이 1만큼 증가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약 0.004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이 노인복지와 같은 경제성장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졌거나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김태홍(2007)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GDP의 0.2%로 미국의 5.8%와 영국의 5.7%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방식개선,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실시 및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11 모형의 추정결과표

Variable	이원확률효과 Random Two Way Estimates	
	Estimate	Pr> t
Intercept	0.475957	0.1251
ln자본	0.719181***	<.0001
친목 및 사교단체	0.000483	0.5698
취미·스포츠 및 레저단체	0.000848	0.6214
시민사회단체	-0.0061*	0.0992
이익단체	0.009828**	0.0135
자원봉사활동	-0.00443*	0.1020
R-Square	0.7540	
F-test	<.0001	
Hausman Test	0.5398	

*p<0.1, **p<0.05, ***p<0.01에서 유의미

제 6 장 결 론

사회자본은 경제성장의 동력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외적인 요인으로서 최근 국가, 지역 또는 개인의 경제발전과 성과를 설명하는 변수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사회자본은 구조적 특성과 조합에 따라 경제성장에 정(+)의 효과를 주기도 하며 부(-)의 효과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처음 사회자본의 개념은 개인의 경제적 성공이나 성취를 설명하려는 다분히 미시적인 의도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회자본 개념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지역, 국가를 단위로 하여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와 같은 거시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들에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자본을 대변할 수 있는 변수들의 자료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제발전과 성과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대부분이 국가차원의 실증연구 또는 특정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한 지방이나 마을 단위의 연구가 많았다. 전자는 지역 단위에서 나타나는 미시적 차이와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거시적 분석의 수준에 그치는 반면, 후자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마을 단위의 연구에 그치며 일반화된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왕혜숙, 2011).

이에 본 연구는 사회자본에 대해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우리나라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사회자본의 지역별 차이를 도출하고 사회자본이 우리나라의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역단위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특성을 규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노동변수, 자본변수, 사회자본변수로 구분한 후 사회자본변수를 사회활동패턴을 나타내는 단체참여와 신뢰를 대변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공간적 분포를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특성은 수도권 및 대도시권과 남부지역 간에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도권 및 대도시권은 스포츠, 취미 및 레저단체와 같은 단체참여가 남부지역에 비해 비교적 활발했으며 남부지역은 친목 및 사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서로 약간의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는 두 지역의 사회자본이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 우리나라 광역시·도별 사회자본에 대한 5개년도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패널모형을 구축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활동패턴을 대변하는 사회자본변수 중 시민사회단체와 이익단체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의 비율이 1만큼 증가하면 약 0.006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와 기업이 상호작용을 할 때 대립적으로 대처하는 소통의 구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사이에서 조율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거나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한 시민사회단체 구조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처럼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여러 이유를 짐작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추정상의 어려움이 있다. 반면 이익단체의 경우에는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익단체 참여율의 비율이 1만큼 증가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약 0.00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자본이 경제성장에 정(+의 효과를 준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한다.

둘째, 신뢰를 대변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의 경우 약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의 비율이 1만큼 증가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약 0.004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경제성장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졌거나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김태홍(2007)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방식개선,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실시 및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자본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상승시키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으나 사회자본을 대변할 수 있는 변수선정의 부족함을 갖고 있다. 사회자본변수의 사회활동패턴과 신뢰를 대변하는 단체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은 각각의 변수에 대한 순수 참여여부만을 알려준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와 여러 단체에 중복 참여했는지의 여부 등은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개별적 특성을 통해 추측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사회자본에 대한 자료의 한계로 5개 년도에 대한 시계열자료만을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80개의 표본만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자본에 대한 통계자료가 1999년부터 3년 단위로 구축되기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조사기간 단위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많은 자료가 구축되면 더욱 원활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광역시·도의 지역내총생산을 사용하였다. 지역내총생산은 지역의 경제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이기는 하나 경제의 물적 또는 양적 성장에 치우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서의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에는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변수를 적용하여 더욱 정확한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한계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는 앞으로 사회자본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기초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성권(2004), OECD 국가들의 사회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국제지역연구, 8(2):491-513
- _____ (2004), 사회자본과 경제성장-중첩세대 R&D모형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22(3):183-210
- 김재훈(2010), '사회자본'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사회경제평론, 34:141-171
- 김지영(2008), 인적자본의 외부효과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룡(2006), 시민단체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0(3):27-51
- 김태홍 외(2007), 한국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인구학 30(3):83-105
- 류석춘 외(2008), 사회자본 개념으로 재구성한 한국의 경제 발전, 사회와 이론, 12
- 박지현(2012),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도경 외(2004),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대한정치학회보 12(1):419-437
- 왕혜숙 외(2011),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사회자본 비교-파트남의 이탈리아 해석에 대한 도전, 동남아시아연구 21(3):43-103
- 유석춘 외(2003), 사회자본:이론과 쟁점, 도서출판그린
- 최충익(2008), 패널모형: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한번에, 국토연구원
- 한성안(2005), 사회적 자본, 경제성장, 혁신, 한국경제학회, 53(1):5-32
- 홍현미라(2005), 지역사회 변화전략으로써의 자원개발과정에 관한 연구-사회자본(social capital) 관점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후쿠야마 Fukuyama F.(1996), 트러스트: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구승희 역), 한국경제신문사

- Baltagi, B. H.(1995),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Chichester, New York: Wiley
- _____ (2009), *A Companion to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NJ: John Wiley & Sons.
- Beugelsdijk, S., van Schaik, T.(2005), Social Capital and Growth in European Regions: an Empirical Tes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1(2):301-324
-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유석춘 외 편역(2003), *사회자본:이론과 쟁점*, 도서출판그린), from J.E.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of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241-258
-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유석춘 외 편역(2003), *사회자본:이론과 쟁점*, 도서출판그린),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94-121
- Knack, S., Keefer, P.(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 Country Investigation, *Journal of Economics*, 112(4): 1251-1288
- Kristof Titeca(2008), The Dynamics of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Associations in Uganda_Linking Capital and its Consequences, *World Development*, 36(11):2205-2222
- Newton, Kenneth(1999),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in Modern Europe. Jan W. van Deth, et al., eds.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London: Routledge, 3-24
- Olson, M.(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 Putnam, R(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유석춘 외 편역(2003), *사회자본:이론과 쟁점*, 도서출판그린), *The American Prospect*,13(spring):35-42
- Putnam, R., Leonardi, R., Nanetti, R.Y.(1993),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Woolcock, M(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유석춘 외 편역(2003), 사회자본:이론과 쟁점, 도서출판그린), Theory and Society, 27:151-208

Abstract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Regional Economic Growth

Seung Hyun Kim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has been an increased interest in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relation to economic development. Although social capital is considered an important factor in explaining economic success, it may have different effects according to its form and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paper performs an empirical test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using indicators of associational activity and trust.

Before conducting an empirical analysi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apital in each individual SiDo of South Korea to define whether there is a remarkable difference in the level of social capital.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as slightly a difference i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apital between metropolitan areas and southern regions of South Korea. While metropolitan areas showed relatively higher participation in the group of hobby, sports & leisure, southern regions revealed a rather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groups of social meetings, civil society organization, and voluntary service.

Based on the different features of social capital according to different region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social capital has on South Korea's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result suggests that associational activities whic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est groups and civic groups, have different effects on economic performance. It showed that interest groups stimulate regional economic growth while civic groups cause negative effects. It also shows that in Korea, trust has detrimental effects on economic growth. However, this study has its limits due to the lack of detailed measurement in social capital and implies that more development is needed in order to measure social capital more accurately.

**keywords : Social Capital, Regional Economic Growth,
Associational Activity, Trust, Panel Model**

Student Number : 2010-23872